

‘도로 위 폭탄’ 싱크홀 해마다 증가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싱크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재성(서구1) 의원은 19일 시민안전실세에 대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집하로 인한 동공, 즉 싱크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싱크홀 발생건수는 2016년 6건, 2014년 7건, 2015년 16건, 2016년 21건, 지난해 21건으로 매년 증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 시민 불안 커져 올 상반기에만 37건에 달해...지나해 21건

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무려 37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71건인 반면 2018년 상반기에만 절반에 가까운 34건(71건 대비 47.8%)

이 발생해 더 이상 광주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반이 내려 앉은 싱크홀은 최근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같은 싱크홀은 지하층 토사 유실로 발생되고 대형 고층

건축물 건설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굴착 후 다짐 불량이나 노후 하수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며 원인을 규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장 의원은 “서울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매년 3D GPR탐사를 통해 도로를 스캔하면서 지반함몰이 예측되는 곳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면서 “광주도 부단수 내시경이나 하수관로 촬영로봇과 지반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성희롱·성폭력신고 접수 절반 ‘2차 피해’

여가부, 사건 무마 38%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접수사건 10건중 4건 이상이 2차 피해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66건중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19건으로 분석됐다. 전체 신고사건의 45%에 해당된다.

2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성폭력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74건(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의적 소문(54건·28%) ▲인사 불이익(27건·14%) ▲보복·괴롭힘(24건·12%) ▲가해자의 예고소(16건·8%)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법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점검단)은 2차 피해가 신고되면 해당기관에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공조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업주 또는 기관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이란 친구 난민 심사해주세요”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친구인 이란 국적 소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시험지 유출 고발한 광주 학생들의 외침 ‘공정사회’

“불공정한 일을 보고 피하기보다는 직면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사건은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 정의와 공정 사회를 외친 학생들의 고뇌에 찬 결단이 있었기에 세상에 드러났다.

여태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았을 구조적인 비리를 밝혀 진일보한 사회를 촉구한 학생들의 결기에 사회와 어른들이 답해야 할 차례다.

1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D고교의 시험지 유출사건은 학생 18명의 연관장이 시발점이 됐다.

시험지 유출을 확인한 학생들은 A4 용지 한 장에 사건을 파악하게 된 배경과 불공정한 시스템, 무엇보다 자신들도 이번 일로 불이익을 감

수하겠다는 심정을 자필로 꼭꼭 눌러 쓴 뒤 서명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하며 매일 부대끼는 친구의 부정행위를 고발한다는데 심적 갈등을 겪었다.

이번 일로 자신들은 물론 동급생들과 광주지역 전체 학생들이 앞으로 다가온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부정행위 지역이라는 도매금으로 취급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기숙사 방 대표 학생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눈물과 두려움, 분노가 교차했다.

하지만 두려움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불의와 불공정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정의감이 더 컸다.

촛불혁명을 지켜보고 성장한 민주시민 의식의 발로였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이 박한 세대 속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두려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너희들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 “편한 문제를 일으켜 재시험을 보게 됐다”, “이번 대학입시에서 광주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시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 불신이 팽배했던 학사관리 문제점들이 수술대 위에 오르고 있다.

이제 수술을 집도할 사회와 어른들이 학생들이 외친 공정사회에 답해야 한다.

조인호 기자

광주버스터미널서 외국인 가방 도난 신고

광주에 여행 온 외국인의 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오전 8시15분 사이 서구 광전동 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카자흐스탄인 A(25·여)씨의 외국인등록증, 휴대전화와 현금 160만원이 든 배낭과 여행용 캐리어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여행을 마치고 경기도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누군가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문 열어둔 아파트 저층만 턴 30대 구속

순천경찰서는 19일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순천·여수시 일대 저층 아파트 23곳을 들머 28회에 걸쳐 현금·귀금속·차량 2대 등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벽시각에 방범창과 CCTV가 없는 구도심 아파트 1~2층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하루에 집 5~6곳을 털었으며, 주민들이 잠든 사이 사람장과 진열대에서 금품을 훔쳐 나오는 데 10분 가량 걸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마스크·모자·장갑을 착용했으며,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골목길에 버려두고 택시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잠에서 깨 집주인에게 범행이 발각될 경우,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의 절도 행각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재발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열대야로 창문을 열어둔 구도심 아파트만 노렸으며 “아파트 저층의 경우 방범창을 설치하고,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스마트폰 35대 훔친 가출 청소년 2명 입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스마트폰 30여대를 훔친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특수절도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전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스마트폰 35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행 1시간 만에 이들을 붙잡은 뒤 1대당 70만~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모두 회수했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와 함께 가출했는데 생활비가 떨어져 스마트폰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차장서 잠든 50대 음주차량에 깔려 중상

제주에서 19일 심야에 주차장에 누워 잠들어 있던 50대 남성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8분께 제주시 내도동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흥모(33)씨가 몰던 승용차가 고모(51)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고씨가 중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흥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흥씨가 주차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구묘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년,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구묘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